

## 한국사회에 유입된 한자 음역어의 시기별 유입과정 분석

박영애\*, 모정열\*\*

###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한자 음역어의 유입과정 분석
  - 2.1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유입된 음역어
  - 2.2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개화기 이전까지 유입된 음역어
  - 2.3 개화기 이후에 유입된 음역어
3. 결론

### [국문초록]

우리말의 어휘 체계 중 대부분을 한자어가 차지하게 된 것은 오랜 역사적 관계나 지리적 상황으로 볼 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에 중국이 自國의 발음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 썼던 한자 음역어가 우리국어 속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며,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다. 게다가, 우리 고유의 문자인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도 우리민족은 중국이 한자로 음역한 어휘를 주체적인 순화과정 없이 고유어 속에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한자 음역어를 문제 삼는 근본 이유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한자 음역어들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항상 명확한 기준이나 구분 없이 통째로 용례를 나열하는 정도에 그쳐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기존의 한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어 속에 수용되어 있는 복잡한 한자 음역어들의 유입과정을 유입된 시기와 유형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

\* 중앙대학교 대학원 중국지역학과 박사과정

\*\*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전공 부교수, mjymsy@hanmail.net

리하였으며 현재 우리 국어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휘들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주제어 : 한자어, 외래어, 음역어, 순수 우리말, 고유어, 한자 어휘, 중국어

### 1. 들어가는 말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특히 중국의 문자인 ‘漢字’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유입되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융화되었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말 속 깊숙이 녹아들어 지금까지도 우리말의 어휘 체계 중 상당 부분을 한자어가 차지하고 있다. 근대 문물 수입 초창기에는 서유럽의 사물을 가리키는 어휘의 대부분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던 말을 그대로 우리말로 받아들인 경우가 잦았다. 이로써 우리와 서유럽의 만남은 중국과 일본을 통한 간접적인 만남으로 시작되었다<sup>1)</sup>고 할 수 있다. 그중에는 뜻은 무시하고 음이 비슷한 것만을 취한 音譯語(借音語<sup>2)</sup>)도 적지 않았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한자를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음역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역어들은 외형상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한자를 원형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읽는 법까지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 음으로 읽었고, 그 결과 원래의 소리와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음만 빌려 차용한 한자 음역어는 제아무리 한문고수라 할지라도 글자만 보고서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 음역어들은 한국어 속에 여전히 잠

1) 조남호(趙南浩),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새국어소식』 통권88호, 국립국어원, 2005년 11월.  
2) 借音語; 페데리코 마시니가 사용한 용어로서 중국이 외국어를 수용할 때 발음을 음차한 경우를 일컫는다. 그는 최초의 차음어는 후한시대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동식물 관련용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音譯語로 통용된다. 본고에서도 음역어란 명칭으로 통일하였다.  
- 페데리코 마시니, 『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이정재 옮김, 소명출판사, 1993년.

식되어 있으며, 그 어휘가 한자어인지 아닌지조차 모른 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우리말에 들어온 이들 한자 음역어의 생명은 꽤 오래 이어졌다. 물론 지금이야 많이 사라졌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심심찮게 보거나 들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동백림 사건(東伯林)’이나 ‘보불전쟁(普佛戰爭)’이란 표현은 각각 ‘동베를린’,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으로 지금은 개정되었으나 예전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사용되던 표현이었다. 이 밖에도 음역어들이 문학작품 등에 쓰일 경우 개정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국어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문학 작품 중 『와사등(瓦斯燈)』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와사등’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영어의 가스(gas)를 중국어로 음차한 표현인 ‘瓦斯(wà sī)[와-쓰]’에서 비롯된 것을 설명해야만 ‘와사등’이 왜 ‘가스등’의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 이러한 음역의 과정을 모르는 이들은 지금도 왜 ‘와사등’이 ‘가스등’인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우리 국어어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의 기원을 심재기는 중국 고전에서 연유한 것, 중국을 경유한 불교경전에서 나온 것, 중국의 口語 즉 白話文에서 연유한 것, 일본에서 만든 것,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것의 다섯 가지 계보로 구분<sup>3)</sup>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음역어는 대개 중국을 경유하여 들어온 불교경전과 중국 白話文에서 연유한 것,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온 것에 대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 학계의 일반적인 관점이다. 이에 필자는 음역어들의 발생 기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시대를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한글이라는 문자체계가 생겨난 15세기와 문호를 개방하면서 급격한 변혁을 맞이하게 된 19세기를 기준으로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으며, 어느 시기에 어떤 어휘가 전래되었는지 그 유입과정과 본 어원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시대구분은 다음과 같다.<sup>4)</sup>

3) 박영섭, 「韓國 漢字語의 起源的 系譜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년.

4) 시대구분은 허벽<한·중 양국어의 어휘 비교연구> 『말(19호)』 연세대학교출판사, 1994년 46면을 참고하였으나 개화기(갑오개혁)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필자의 자

- 첫째, 한자유입이후부터 훈민정음 창제 이전 (15세기 이전)
- 둘째,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개화기 이전 (15세기 ~19세기 이전)
- 셋째, 개화기 이후 (19세기 이후)

## 2. 한자 음역어의 유입과정 분석

### 2.1 15세기 이전에 유입된 음역어 (고대~훈민정음 창제 이전 시기)

우리 고유의 글자가 없었던 당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중국글자인 한자를 익히는데 주력하였는데, 한문의 구조는 바로 중국어의 언어구조라 할 수 있으니 이때부터 우리 선조들은 우리말과 중국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게 된 셈이다. 중국을 통하여 서역의 신문물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는 신문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붙여진 사물의 명칭까지 들여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어휘들이 지금의 한국어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한자 음역어는 중국이 서역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유입된 문물들의 명칭에서 처음 보이기 시작했는데, 당시 흉노족<sup>5)</sup>·돌궐족<sup>6)</sup>의 언어와 페르시아(이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산스크리트어의 음역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이에 필자는 중국어에 이민족들의 언어가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를 漢武帝 때 서역을 정벌하면서부터라 규정하고<sup>7)</sup>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한자로 음

---

체 설정이다. 또한 기존 자료에서는 시대 구분 없이 한데 묶어 나열한 어휘들을 본 논문에서는 필자의 관점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고 각 음역어들의 유입 시기와 음역 과정을 분석하였다.

5) B.C 3세기 말부터 A.D 1세기 말까지 몽골고원·만리장성 지대를 중심으로 활약한 유목기마민족(遊牧騎馬民族) 및 그들이 형성한 북몽고와 중앙아시아 일대의 국가를 의미한다.

6) 6세기 중엽부터 약 200년 동안 몽골고원을 중심으로 활약한 투르크계 민족

7) 김효숙, 「중국어의 외래어수용 기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년, 31-43면 참조.

역되어 한국어에까지 들어온 어휘들을 모아 어원을 분석해보았다.

### 2.1.1 이민족의 어휘 흡수에 따라 생겨난 음역어

중국은 지리적으로 수많은 이민족들과 접하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개념의 어휘를 흡수할 수 있었다. 특히 북방의 유목민족이었던 흉노족과의 오랜 교류로 인하여 흉노어의 영향을 받은 어휘들을 많이 흡수하였으며, 한(漢) 무제(BC.139~BC.126)때 장건(張騫)이 사신으로 통과되어 실크로드를 동해 서역과 교류를 시작함에 따라 漢代·唐代는 서역과의 문물 및 문화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와 함께 여러 어휘들도 유입되었다.<sup>8)</sup> 그 중 한자로 음역된 어휘들이 우리말속에 그대로 전해져 지금까지 우리말인 양 이어져왔는데 아래 열거한 단어가 그 예이다.

▷ 낙타(駱駝) : 흉노어‘da da’의 음역어로 보인다. ‘駱駝’라는 어휘가 중국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전국(戰國) 시대 말엽, 육가(陸賈)가 쓴 『新語』의 〈道基〉 편<sup>9)</sup>으로, BC119년 한 무제가 장건을 서역에 두 번째 파견하였을 때, 장건이 이끈 使臣團은 수만 마리의 낙타와 비단을 갖고 서역을 방문하였다는 기록을 통하여 중국에 낙타가 들어온 것은 기원전 2세기보다 이전의 일이라 추측할 수 있다.

▷ 포도(葡萄) : 이란어‘budāwa’ 또는 ‘buŌawa’의 음역어로 보기도 한다. 『史記』, 『漢書』에서는 포도를 ‘葡萄’로 표기하고 있으며, 『後漢書』에서는 ‘葡萄’로 표기했고, 『三國志』, 『北史』에서는 ‘葡萄’로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언어학자인 楊志玖의 고증에 따르면 『漢書·西域傳』에 기록된 오익산리(烏弋山離)지방의 복도국(挾挑國)에 이 과일이 많이 생산된다하여 지명으로서

8) 김효숙, 「중국어의 외래어수용 기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년, 31-43면 참조

9) 『新語·道基』：“夫驴、骡、骆驼、犀、象、瑇瑁、琥珀、珊瑚、翠羽、珠玉，山生水藏，择地而居。”

과일명을 지칭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보고 있다. 또한 扑挑(pū tiāo)는 朴挑라 표기되기도 한다하였다.<sup>10)</sup> 중국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葡萄를 이란의 음역어로 보고 있다.

▷ 석류(石榴) : 이란어‘arsak’의 음역어로,‘安石榴<sup>11)</sup>에서‘安’이 생략된 모습이다. 석류가 처음 중국에 유입된 시기는 기원전 2세기경으로, 晋나라 張華의 대표 저서인《博物志》에서 따르면 漢武帝때 張騫이 서역 정벌에 나섰다가 귀국할 때 페르시아(이란)에서 과일나무를 들여오면서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페르시아를 安石國·安息國이라 불렀기 때문에 중국에서 안석류(安石榴)라고 부르던 것이 한국에서는 ‘석류’로 줄여져 불려진 것으로 보인다.

▷ 사자(獅子) : 사자 역시 서역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한국어의 사자(獅子)란 이름은 이러한 중국어 한자표기를 거쳐 들어온 것이지만, 중국어가 어원은 아니다. 뒤에 붙는 子는 접미사로 붙은 것이며, 사자의 사(獅)란 한자는 개사슴록변에 스승 師가 결합된 형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의미요소를 갖는 부수를 덧붙임으로서 師의 의미를 한정하기 위함이다. 사자가 처음 중국에 알려진 문헌을 확인하면 이란어‘شیر (šary)’를 師로 표음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현대 이란어에서는 사자를 Shir (شیر)라고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은 獅’자의 발음을 이란어‘شیر’의 음역으로 보고 있다.

▷ 몰약(沒藥) : 영문으로는 Myrrh로 표기되며, 어원은 아랍어의 ‘murr’를 음역어한 것으로 ‘末藥’이라고도 한다. 본래 어원인‘murr’의 의미는‘쓴맛(苦)’을 뜻하는 것으로, 3천년 이전에 고대문명국가에서 약재로 사용하던 것의 이름이었다. 沒藥은 宋나라 開寶 6년(973)에 『開寶本草』에 수록되어 있는데,

10) 羅常培著, 哈英삼 譯註, 《언어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년, 48-58면 참조.

11) 「汉张騫出使西域, 得涂林安石国榴种以归, 故名安石榴」

石榴原产波斯(今伊朗)一带, 公元前二世纪时传入我国。“何年安石国, 万里贡榴花。迢递河源边, 因依汉使槎。”据晋·张华《博物志》载:“汉张騫出使西域, 得涂林安石国榴种以归, 故名安石榴。”

馬忠은 이에 대해 “沒藥生波斯國，其塊大小不定，黑色似安息香。(몰약은 페르시아국에서 난다. 그 덩어리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흑색으로 安息香과 비슷하다.)”라고 했다. 또한 ‘末藥’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沒’[muət]와 ‘末’[muat]자의 음이 모두 ‘murr’에 가깝기 때문<sup>12)</sup>이니, 이는 곧 아랍어 ‘murr’의 음역임을 역설하는 부분이다. 즉, ‘murr’를 음차하기 위해 ‘m-’로 시작하는 중국어의 沒과 末를 빌려 사용하였으며 이것이 약재이므로 뒤에 藥이란 글자를 붙여 표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성경 구절에 사용되고 있다.

▷ 호박(琥珀) : 琥珀의 영어 이름은 Amber이고, 라틴어로 Ambrum이며 ‘精髓’를 의미한다. 또한 아랍어로 Anbar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스페인 사람들이 땅속에 아랍의 고무와 호박을 묻어놓을 것을 일컫는 것이었다. 호박의 기원으로 김효숙(2003)<sup>13)</sup>은 돌궐어 ‘xubix’의 음역어로 보고 있으나 자세한 근거는 찾기 힘들다. 또한 중국 고대에는 호박을 호랑이의 영혼이란 뜻으로 ‘虎魄’이라고도 불렀다 전해진다.

▷ 나팔(喇叭) : 몽고에서 유입된 외래어로 어원은 산스크리트의 'rappa'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입을 크게 벌린다는 뜻이 있으며, 중국에서 나팔(喇叭)이라 번역되었고 그 단어가 한국에 전해져 독음으로 읽으니 나팔이다.

▷ 법랑(瑠瑯) : 瑠瑯 또는 ‘佛郎’, ‘法藍’이라고도 하며, ‘景泰藍’을 일컫는 것으로 경태람이란 銅器표면에 구리선으로 무늬를 내고 에나멜을 발라서 불에 구워 낸 공예품으로, 명대 경태(景泰) 연간부터 대량으로 제작하기 시작하였으며, 유약이 주로 ‘藍色(파란색)’을 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景泰藍’이다. 瑠瑯은 고대 중국 수당시기에 서역의 동로마 제국의 지명이었던 ‘拂

12) 羅常培著, 하영삼 譯註, 《언어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2002년, 56면 참조.

13) 김효숙, 「중국어의 외래어수용 기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년, 31-43면 참조

赫(Fúlín)’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동로마제국과 서아시아의 지중해 연안 등지에서는 유약을 발라 구운 搪瓷(법랑)가 제조되었는데 이를 拂赫嵌(fú lín qiàn) 또는 佛郎嵌(fó láng qiàn)라 불렀는데 간단히 줄여 拂赫라고도 하였다. 景泰藍이 출현하면서 发蓝이라 바뀌어 발음되다가 후에는 珐琅으로 변하였다. 중국의 고대시대에 법랑기(珐琅器)가 아랍 국가들(大食国<sup>14</sup>)로부터 유입되었기 때문에 大食窑, 鬼国窑로도 불리웠으며, 그 이후에도 통일된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佛郎嵌, 鬼国嵌, 法蓝, 法郎, 拂林, 佛郎, 富浪’ 등 다양하게 불렀지만 모두 珐琅을 뜻하는 어휘들이다.

▷ 돌궐(突厥): 돌궐족은 우리에게 익숙한 부족 이름이다. 이것이 투르크 민족을 일컫는 것 역시 잘 알려져 있다. ‘突厥(돌궐)’을 현재의 漢語拼音으로 읽으면 [Tūjué(투취에)]인데, 이는 古代漢語에서 구개음화되어 변화된 발음이다. 튀르크는 불가리아어‘Турция(고크튀르키)’와, 터키어‘Gök Türk İmparatorluğu (괴크 튀르크 임파라토르루유)’에서 따온 말로 보인다. 중국어 발음으로는 충분히 튀르크가 연상되나 이를 독음전사한 우리말의 ‘돌궐’은 원어발음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인다.

## 2.1.2 불교 경전의 전래로 유입된 음역어

6세기 경 漢武帝가 西域을 정복한 이후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외래어가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 漢魏-隋唐시기에 이르는 불경의 번역작업 기간 동안 西域과 중국의 僧들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불경 번역 작업이 성행하게 됐다. 불교의 많은 개념과 사물을 나타내는 말들이 梵語(산스크리트어<sup>15</sup>)로부터 한자로 음역되면서 중국 어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

14) 중국 당송시기에는 아랍국가들을 통칭하는 Tazi을 음역하여 大食라 표현 하였다.

15) 산스크리트 [Sanskrit] - 인도아리아어(語) 계통으로 고대인도의 표준문장어. 중국 및 한국에서는 범어(梵語)라고도 한다. 원어(原語)로는 상스크리타(saskit)라고 하여 완성된 언어, 순수한 언어를 의미하며, 속어 프라크리트(prakt)에 대칭된다. 언

는 중국 고대 외래어 수용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sup>16)</sup> 불교와 함께 들어온 불교 경전들은 중국에 처음 들어올 때 실담문자<sup>17)</sup>의 형태로 전래되었으나, 이 문자들은 점차 한자어로 번역되었고, 오히려 지금은 실담문자의 자취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 당시에 번역된 음역어들이 한국어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다음 열거한 예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로 음역어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범(梵) : 청정, 고요, 無慾을 의미한다. 산스크리트어 ‘brahman’의 음역어로 중국어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단어는 대부분 ‘梵’자를 포함하는데 ‘梵摩, 梵音, 梵夾, 梵宇’ 같은 것이 그 예이다.

▷ 삼매(三昧) : 삼매경. 산스크리트어 ‘samādhi’의 음역어로 ‘三昧地’, ‘三摩席’, ‘三摩提’로 음역되어 한국어에 들어오게 되었다.

▷ 불(佛) : 우리말로 불타 또는 부처라 표기한다. 산스크리트어 ‘buddha’에서 유래되어 처음에는 佛陀, 佛它, 沒度, 浮頭, 步他 등으로 음역되다가 최후에 간단히 ‘佛’이라 하였다. 이 글자가 우리말에 그대로 사용되어 佛, 佛像이라 하게 되었다.

▷ 탑(塔) : 산스크리트어 ‘stūpa’의 음역어로 ‘率都婆’, ‘蘇偷婆’, ‘卒塔婆’, ‘塔婆’, ‘偷婆’ 등으로 음역되다가 ‘塔婆’에서 뒤 음절이 생략되어 ‘塔’의 형태로 쓰이게 되었다.

▷ 찰나(刹那) : 산스크리트어 ‘ksana (क्षण)’의 음역어로 ‘刹那’, ‘叉拿’등으로도 번역되었다. 손가락을 한번 튀기는 순간의 짧은 동안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학상으로 . 산스크리트는 이 중 인도 이란어파에 속하는 언어이다.

16) 김효숙, 「중국어의 외래어수용 기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년, 39-42면 참조

17) 실담문자: 굽타 문자에서 변화한 싯다마트리카체가 중국에 들어가 悉曇, 悉談, 七曇 등으로 전사되다가 실담으로 고정되어 실담 문자라 불린다. 《법륜사 폐업》이라고 불리는 「반야심경」이 불교와 함께 중국, 한국, 일본에 전래되었다. 이 문자는 자음 문자와 모음 문자로 구분되는데, 자음 문자는 기본적으로 모음 ‘ㅏ’를 가지고 있다. ‘ㅏ’ 이외의 모음이 자음과 결합한 음절을 나타낼 경우에는 자음 문자에 모음 기호를 붙여 사용하였다. 이 문자의 자모표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바람.

<http://www.cyworld.com/studykorean/2782210>

극히 짧음을 나타내는 관념적인 시간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유입될 때 불경과 함께 들어온 어휘지만 현재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되었다.

▷ 보살(菩薩)<sup>18)</sup> : 산스크리트어 'Bodhisattva(보디사트바)'의 음역으로 보리살타(菩提薩陀)의 준말이다. 보디(bodhi)는 budh(깨닫다)에서 파생된 말로 깨달음·지혜·불지(佛智)라는 의미를 지니며, 사트바(sattva)는 as(존재하다)가 어원으로 생명 있는 존재, 즉 중생(衆生)·유정(有情)을 뜻한다.

▷ 나한(羅漢) : 산스크리트어 'arhat'의 음역어로, '阿羅漢', '阿梨呵' 등으로 음역되기도 했다. 나한(羅漢)은 阿羅漢<sup>19)</sup>의 준말로 우리 속담에도 있다. 예를 들어, '羅漢에도 모래 먹는 羅漢이 있다'는 말은 '나한 가운데에도 공양을 받지 못하여 모래를 먹는 나한이 있다'는 뜻으로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고생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는 의미이다.

▷ 열반(涅槃) : 산스크리트어 'nirvāna(니르바나)' 혹은 'nirvan'의 음역어로 '涅槃', '泥日', '泥桓' 등으로 음역되다가 涅槃의 형태로 한국어로 들어오게 되었다. 또 니원(泥洹)·열반나(涅槃那) 등으로 음역하기도 한다. nir(out)+vā(to blow)의 어원으로 해석되는 열반의 본뜻은 '불어서 끄는 것' '불어서 꺼진 상태'를 뜻하며, 마치 타고 있는 불을 바람이 불어와 꺼버리듯이,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로 꺼서 일체의 번뇌·고뇌가 소멸되고 비로소 적정(寂靜)한 최상의 안락(安樂)이 실현상태를 가리킨다.

▷ 사리(舍利) : 산스크리트어 'śarira'의 음역어로 '舍利子', '設利羅', '設利', '寶利羅', '實利' 등으로 음역되었다. 佛陀와 聖者の 참된 불도 수행의 결과로 생긴다는 구슬 모양의 유골을 일컫는다.

18) 菩薩은 大乘불교에서 지칭하는 말로 善을 상징한다. '菩薩心腸'이란 말로 '착한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19) 아라한[阿羅漢, Arhan]: 小乘의 수행자들, 즉 聲聞乘 가운데 최고의 理想像. 나한(羅漢)이라고도 한다. 아라한은 본래 부처를 가리키는 명칭이었는데, 후에 불제자들이 도달 하는 최고의 계위(階位)로 바뀌었다. 수행결과에 따라서 범부(凡夫)·현인(賢人)·성인(聖人)의 구별이 있는데, 잘 정비된 교학(敎學)에서는 성인을 예류(預流)·일래(一來)·불환(不還)·아라한(阿羅漢)의 사위(四位)로 나누어 아라한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있다.

▷ 비구니(比丘尼) : 산스크리트어 'Bhiksuni'의 음역어로 중국어 발음음 [bǐ qiū ní]이다. 이 것 역시 중국이 음역한 것을 한글 독음으로 읽어 '비구니'로 정착되었다. 「尼」는 범어에서 여승을 가리키는 말이며, 比丘尼는 출가한 여승을 지칭하는 말로 중국어로는 苾芻尼、比呼尼、除薩女、乞士女、沙門女라고 번역되었다.

▷ 아수라(阿修羅) : 산스크리트 '(asur (असुर))'를 중국에서 음역한 것으로 '阿修羅' 외에 '阿須羅、阿索羅、阿蘇羅、阿素落、阿須倫、阿須輪' 등으로 표기하기도 하며, 약칭은 '수라(修羅)'라고 하는데, 수라는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과 신의 중간적 존재로 투쟁의 神'이므로 싸움을 일삼는 일종의 鬼類이다. 박영섭(1987)에서는 “이 어휘는 中世語 에서는 東國正韻式 표기로 ‘항술랑’로 鬼衆이라 하였다”<sup>20)</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라’는 어간 ‘阿’가 탈락한 표현이며, 중국어에서 ‘場’을 첨가하여 ‘(아)수라장’이란 단어가 형성되었다. 이 단어는 본래 阿修羅率이 帝釋天현과 싸운 장소를 뜻하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인간계의 싸움 장소를 지칭하는 의미로 轉義되어 전란이나 투쟁으로 비참한 광경이 된 장소를 지칭하는 단어로 굳어졌다.

▷ 단말마(斷末魔) : ‘末魔’는 산스크리트어 ‘Marmar(마르만)’을 음역한 것으로, 이는 관절이나 육체의 치명적 부분, 즉 급소를 의미한다. 이 단어 앞에 ‘끊어지다’의 의미인 ‘斷’을 붙여 만든 합성어가 바로 ‘斷末魔’이다. 말마를 자르면 죽음에 이른다는 의미이며 인간이 죽을 때 느끼는 최후의 고통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범어들이 중국어로 음역되어 우리 나라말에 들어와 본래 외국 발음과는 다르게 한글로 표기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위의 단어 외에도 우리가 불교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아미타불(阿彌陀佛, amitadha)이나 석가모니(釋迦牟尼(Sakamony)<sup>21)</sup>, 달마(達磨, Dharma) 등도 모두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것인데 모두 중국이 받아들인 외래어로서 우리말

20) 박영섭, 「韓國 漢字語의 起源的 系譜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년, 48면 참조.

21) 佛은 大乘불교에서는 ‘깨우친 자’를 일컫는 말이고, 小乘불교에서는 Sakamony(釋迦牟尼)라 한다.

에서는 한자음을 우리말 발음 그대로 발음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 2.2. 15세기 이후부터 개화기 이전까지 유입된 음역어

이 시기의 특징은 한자 어휘의 대부분이 明, 淸시대에 사용되던 어휘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무렵에 나타난 한자 어휘 역시 단음절로 이루어진 단어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二音節 이상의 복음절사도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 2.2.1 기록물에 나타난 음역어

이기문(1965)<sup>22)</sup>은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편집된 역학서를 중심으로 70여개의 중국어 차용어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의 자료에 의하면 근세에 우리나라가 取音한 한자 어휘들은 한자 음역어보다는 중국이 스스로 만든 한자어가 더 많이 보이며 이러한 어휘들은 대부분 우리 국어 속에 귀화되어 있거나 이미 역사 속에 사라져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기문의 자료에서 보이는 한자 음역어로 의심되는 어휘를 현대어와 함께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이기문(1965)에서 제시한 한자차용어와 현대 중국어 비교표

구분	근세 중국어 차용어 표기	현대어
珍寶	보빅(寶貝)	보배
	미라(密蠟)	밀랍
	파란(玳瑁)	범랑
	머리(玻璃)	유리
服飾	간투(敢頭)	감투
食物	사탕(砂糖)	사탕

22) 이기문, 「근세 중국어 차용에 대하여」, 『아시아연구』 제8권 2호, 1965년, 195면.

布帛	야청(鴉靑)	아청
器用	산판(算盤)	주판
	푼즈(盆子)	대야
	가즈(架子)	가자
商賈	푸즈(鋪子)	푸주
	천량(錢糧)	천량
禾穀 · 蔬菜	슈슈(蜀蜀)	수수
	비치(白菜)	배추

박영섭(1986)<sup>23)</sup>은 중세국어에 차용된 중국어 차용어들은 현대에 들어온 중국 음역어들의 성격과는 다르게 당시 사회에 사용되던 사물의 명칭이 대부분인 까닭으로 거의 소멸되어 현행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설령 현행어에 사용되는 어휘라 할지라도 한자어라는 의식 없이 고유어처럼 사용될 뿐이어서 국어어휘에 미친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며, 어휘의 내용도 빈곤하여 뚜렷한 특성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어휘들의 영향이 그렇게 미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들 근세 중국어 차용어들은 실물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음을 증명해주는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된 물건들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19세기 이전에 중국을 통하여 과학, 지리, 기독교 관계 서적이 들어오면서, 漢語로 번역된 서구어가 우리말 속에 소개 되었으며,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서구문명과 직접 접촉하면서 한자가 아닌 많은 양의 서양음을 음차한 외래어가 새롭게 많이 유입되었다. 이 당시의 문헌을 일일이 살펴 음역어를 발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사적 속에 한자 음역어는 존재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자 음역어를 정리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기록을 제대로 살펴하는데 어려움이 컸다고 본다.

가령 이능화(1928)<sup>24)</sup>의 『朝鮮基督教及外交史』 上篇 제 1장을 살펴보면

23) 박영섭, 「韓國 漢字語의 起源의 系譜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년, 62면 참조.

24) 이능화, 『朝鮮基督教及外交史』, 朝鮮基督教彰文社, 1928년.

조선시대에 서구의 문물을 수용되었던 일들이 기록되어있다. 특히 서유럽의 국가이름부터 서양인의 이름, 신문물의 명칭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휘들은 19세기 이전의 서구어계 외래어로서, 중국을 거쳐 들어온 2차 관용어로 보이지만 한자로만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능화의 『朝鮮基督教及外交史』를 연구한 논문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내용 중 나타나는 한자 음역어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가한 자료는 전혀 없다. 이에 필자는 이능화의 『朝鮮基督教及外交史』 중 서구어계 외래어를 한자로 음역한 어휘들을 발췌 분석하여 현대 국어 표기법과 함께 다음 표로 제시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자료는 중세시기에 사용된 한자 음역어의 정확한 해석을 돕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2】 『朝鮮基督教及外交史』에 등장하는 음역어

한문표기	영문표기	한글취음	표준 한국어 표기
제 1장 西洋事情最初見聞			
佛朗机國 / 佛國 佛朗机 / 佛朗國	Portugal	불랑기국 / 불국 불랑기 / 불랑국	<b>포르투갈</b>
支那		지나	
永結利	England	영결리	잉글랜드
伊大里亞	Italy	이태리아	이탈리아
阿蘭陀國	Netherlands	아란타국	<b>네덜란드</b>
歐羅巴 / 歐洲	Europe	구라파	유럽
印度	India	인도	인도
제2장 最初輸入之西洋圖書·武器·物品·曆法			
利瑪竇	Matteo Ricci	이마두	마테오 리치 <sup>25)</sup>
若漢	Joannes Rodaniguesz	약한	요한
湯若望	Joannes Adam Schall von Bell	탕약망	요한 아담 샬 폰벨 <sup>26)</sup>

亞細亞	Asia	아세아	아시아
耶蘇	Jeuse	야소	예수
瑪利亞	Mary	마리아	마리아

▷ 支那(지나) - 차이나 : 이 支那라는 명칭에 대한 유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대 인도와 그리스 로마인들이 이미 秦나라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이 ‘秦’을 Cina, Thin 또는 Sinae라 불렀던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당시 중국의 대표 무역상품은 비단이었는 데 이 비단을 뜻하는 ‘綺(qi)’라는 글자를 프랑스어로 Chine, 영어로 China라 부르게 되면서 Cina, Thin 등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는 유래가 바로 또 다른 설이다. 결국 이‘支那’라는 글자는 서양에서 한자를 재차용하면서 생겨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여 ‘膺懲支那’라 불렀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반감을 사는 용어가 되었다.<sup>27)</sup>

▷ 佛朗机国-포르투갈 : 이 佛朗机国은 프랑스의 옛 번역으로 인식하기 쉽다. ‘佛朗机(fó láng jī)’의 발음은 프랑스의 중국어 음역 중 하나인 ‘佛蘭西(Fó lán xī)’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佛朗机国이란 명칭은 중국 明代에 포르투갈(葡萄牙)을 칭하는 이름이었다. 이능화의 자료 중 제 1장 西洋事情最初見聞 부분을 살펴보면 중종 15년(明正德 15年 서기 1520년)에 佛朗机国로부터 佛朗机라 부른 대포를 들여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佛朗机라는 이름은 전래된 나라의 이름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 중국 기록에 「其中中国最

25) 로마 가톨릭교회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대륙에 정착시킨 이탈리아 출신 예수회 선교사이자. 호(號)는 청태(淸泰)·서강(西江), 존칭은 태서유사(泰西儒士)이다. <천주실의>의 저자로 유명하다.

26) 요한 아담 샬 폰 벨(1591년~1666년); 독일의 예수회 선교사이자, 로마 가톨릭 신부이다. 한국에서는 흔히 아담 샬이라 부른다. 청나라 초기에 중국 베이징에 와서 선교, 학문 등에서 활동하였다. 당시 청나라에서 살고 있던 소현세자는 조선의 발전을 위해 서양 지식인인 아담 샬과 교류했다. 물론 소현세자의 관심사는 기독교가 아닌, 서양 역법과 천문학 등 여러 가지 서양학문과 과학에 관련된 지식을 전수받았다.

27) <http://www.24en.com/word/chsb/2008-02-29/68846.html> - 爱思英语网 참조

先遭遇到的是葡萄牙（明朝称之为佛郎机）（서구의 나라 중 가장 먼저 중국이 만난 나라는 포르투갈(明代 이름은佛郎机였다)이다.」<sup>28)</sup> 라고 하였다. 佛朗机는 전쟁 무기 이름에서 후에 나라 이름으로 대체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阿兰陀国 (아란타국) - 네덜란드 : 이 명칭은 『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5, 논사류, 西洋通中國辨證說』에서 보이는데 이는 네덜란드인들이 처음 조선 땅에 표류하면서 그들의 존재를 기록한 사적이다. 일본 사료 『畚文阿蘭陀漂人耶蘇邪宗否書契』에도 네덜란드인을 阿兰陀人 이라 기록하고 있다.

▷ 영결리 (永结利) - 영국: 이 당시에 ‘영길리’라고 불렀던 국가는 물론 현대의 국경선으로 구분된 영국과 차이가 있다. 19세기 국내외 자료를 보면 영국을 ‘英吉利’라고도 표기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앵글로 색슨 (Anglo-Saxon)족을 ‘英吉利 民族’라 음역하였고 후에 이들이 세운 국가라 하여 영국을 英吉利國라고 불렀다. ‘永结利(Yǒngjiélì)’는 ‘Anglo’의 초기 음역 형태이며 후에 ‘英吉利’로 기록되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부르는 영국(英國)이란 명칭은 이 ‘英吉利’가 중국인들의 언어 습관에 따라 앞글자만 따고 뒤에 국가를 나타내는 國 을 붙여 ‘英國(Yīng guó)’이라 부른 것을 그대로 들여와 한자음으로 읽은 것이다.

### 2.3. 개화기(19세기) 이후에 유입된 음역어

이 시기의 특징은 대량의 한자 어휘가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 만들어져 여과 없이 직수입되어 유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휘들은 주로 의학, 과학, 철학, 문학 등 현대문명과 관련된 각종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한자 어휘들을 중국과 한국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였다. 또 서구어계 단어 가운데

28) 西方国家第一次对华军事冲突来源：互联网 责编：大嘴 作者：王发秀 杨筱憬  
<http://www.defence.org.cn/article-13-32555.html>

에는 중국과 일본 양국이 각각 독자적으로 번역하여 한자어를 상호 차용하기도 하였는데, 한국어가 이 양국의 한자 음역어들을 재차용면서, 그 유래가 모호해 진 어휘가 상당수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근세 국어에 차용된 음역어 가운데 중국이 독자적으로 번역한 한자어들은 주로 아편전쟁과 5·4 신문화 운동으로 유입된 서양의 신문물의 명칭을 당시의 중국음으로 音寫하거나 造語한 술어들로 중국 백화문의 영향을 받은 것이 대부분 이었다.<sup>29)</sup>

비록 현재 국어학계에서 개화기의 외래어가 대부분 서구어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서구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서구어계를 한자음으로 차용한 경우로, 표기만으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때 사용된 음역어에 대한 고찰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개화기 당시 외래어로서 중국어 표기에 대해 살펴보고, 서재극(1970)<sup>30)</sup>이 제시한 개화기 신 용어를 대상으로 하여 필자의 해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3.1 개화기 출판물에 나타나는 음역어

19세기 중반 갑오개혁(1895년) 이후에는 서구세계로부터 새로운 문물들이 일본이 만든 新造語와 함께 대량으로 유입되었는데 음역된 어휘보다는 한자의 의미 기능을 최대한 살린 의역어들이 더 많았다. 본격적으로 서구어를 차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엽부터인데 서재극(1970)에 의하면, 개화기 문헌인 ‘西遊見聞’(1895), ‘獨立新聞’(1896), ‘增補文獻備考’(1908), ‘A Korean-English Dictionary’(Gale, 1911), ‘少年’(1908)과 ‘血의 淚’(1906) 등의 신소설에 상당수 외래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서재극의 조사를 기준으로 개화기 신소설과 少年을 제외한 ‘西遊見聞, 獨立新聞, 增補文獻備考, Gale의 ‘A Korean-English Dictionary’에 나타난

29) 한국어에 들어왔던 중국 백화계 한자어들은 대부분 일본의 강점 하에 모두 일본어계 한자어로 대체된 것으로 보고 있다. - 박영섭(1997) 351면 참조.

30) 서재극, 「開化期 外來語와 新用語」, 『東西文化』, 啓明大學校東西文化研究所, 1970년.

한자 음역어들을 찾아 그 어원과 음역 과정을 조사하여 보았다.

<서유견문(1895)>

서유견문에서 보이는 외래어는 茄菲, 무티소(樹膠), 코코(木實) 로 겨우 세 낱말 밖에 되지 않지만 이 외래어는 개화기에 수입된 외래어의 성격을 대표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중에서 ‘茄菲’는 한자 음역어이다. 무티소(樹膠)는 우리가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메리야스’의 한자 표기 莫大小·無大小의 일본식 발음 표기이다. 본래 이 단어는 스페인어의 ‘medias’, 포르투갈어의 ‘meias’을 중국인들이 한자로 의역한 것을 일본과 한국이 각각 자국의 발음으로 갖다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茄菲: 茄菲는 에티오피아 서남부의 KAffa에서 나온 말로서, qahweh(아랍), qahveh(터키), Koffij(네덜란드), cafe(포르투갈), café(프랑스), Kafee(독일), Kafe(러시아), coffee(영국)등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중국에서는 포르투갈의 cafe를 借用하여 ‘珈琲’로 음역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음운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작자마다 각각 ‘加非(jia fei), 架非(jiafei), 可非(kēfei), 各比伊(gèbǐyī), 可喜(kěxǐ)’ 등 여러 가지 표기를 보이고 있는데, 서유견문에서는 그 가운데 茄菲와 珈琲를 擇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茄菲의 음차된 표현은 ‘카페이’인데 ‘茄菲’자는 우리말로 ‘가비’로 발음되며, ‘珈琲’역시 우리말로 ‘가배’로 발음되니, 본래 어원인 cafe와 발음과 차이가 크다. 현대한어에서 표현하고 있는 ‘珈琲(kā fei)’역시 한글로 읽으면 ‘가배’가 되니 중국어로 발음하지 않는 이상 이 한자어를 사용할 의미가 없다. 현재는 ‘커피’로 표기한다. 비슷한 예로, 인도의 음식의 한 종류인 ‘카레(curry)’를 들 수 있다. ‘카레’의 어원은 남인도의 타밀어로 ‘소스’란 뜻의 ‘카리(Kari)’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現代漢語에서 이를 ‘咖喱(gāli)’라 음차하였고, 이것을 조선시대에는 ‘가리(咖喱)’라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원어 발음과 비슷하게 ‘카레’라고 쓰고 있다.

<독립신문(1896)>

서재극이 조사한 기간은 1896년 4월 7일 제 1호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까지이며, 그가 조사한 외래어로는 ‘삽포, 대나마이트, 브레드, 급계랍’ 이 네 가지였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음역어로는 ‘삽포’와 ‘급계랍’ 인데, 이 중에서 삽포는 산스크리트어 chapeau(帽子)에서 건너 온 것으로 보이며, 한자로 음역한 것은 ‘급계랍’ 하나뿐이다.

▷ 급계랍(金鷄蠟): 독립신문의 廣告欄에서 보이는 어휘로 당시에 사용되었던 어휘이며 지금도 간혹 눈에 띄는 단어이다. 이 급계랍은 ‘키니네(quinine)’를 의미하는 말로 이 ‘quinine’를 중국어로 음역한 ‘金鷄蠟(jīn jī là)’에서 온 것으로 보이며 ‘金鷄蠟’ 또는 ‘金鷄納’이라고도 부른다. 현대 한어에서는 ‘金鷄納霜(jīn jī nà shuāng)’으로 쓰인다. 급계랍나무는 그 껍질에서 채취한 황산키니네가 말라리아의 치료제·해열제·진통촉진제 등으로 쓰여 유명해진 약용식물이다. 현재는 급계랍 나무를 기나(幾那)나무[quinine tree]라 하는데, 중국인들이 명명한 幾那(jǐnà)는 quinine tree의 원산지로 알려진 페루의 ‘Kina’와도 발음이 비슷하여 幾那가 정확히 지명을 음차한 것인지 아니면 ‘quinine’를 음차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어느 것을 음차한 것이든 중국어 발음 ‘jǐ nà’는 ‘Kina’와 ‘quinine’ 모두 비슷하게 발음되니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만 한국어로 ‘급계랍’ 이나 ‘기나’로 표기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음역어라 할 수 없는 단어이다.

<增補文獻備考(1908)><sup>31)</sup>

서재극이 발췌한 외래어 가운데 한자로 음역한 단어가 제일 많이 눈에 띄는 출판물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이 문헌의 기록은 하나의 물품목록(Catalogue of articles)에 불과하여 이 어휘들이 당시 시장에서 실제로 사용

31) 增補文獻備考;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의 上古로부터 대한 제국 말기에 이르기까지의 文物·제도를 분류하여 정리한 일종의 백과사전. 정조 6년(1782)에 이만운에게 명하여 『동국문헌비고』를 보충한 것을, 광무 7년(1903)에 박용대(朴容大) 등 30여명의 문사에게 명하여 이를 다시 증보하여 제계(帝系), 문빙(文聘), 예문(藝文)의 3항을 더하였다. 융희 2년(1908)에 간행되었다. 250권 50책.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당시 수많은 물품들이 한국 사회에 유입되면서 동시에 이들의 명칭도 물밑듯 들어왔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다음은 서재극이 조사한 자료 가운데 현대 한국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속으로의 정착 및 동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 라사(羅紗) : 포르투갈어 ‘raxa라사’에서 유래한 말로 보이며 오늘날에 까지 두꺼운 모직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박영섭(1997)의 자료에서도 한자 음사어(음차어)로 규정하고 있다. 표준국어사전에서는 ‘나사’로 표기되며,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이미 사라졌지만 과거 양복집 이름으로 많이 애용되었던 어휘이다.

▷ 유리(琉璃) : 나상배(1989)는 이 단어의 어원을 ‘璧流離’(산스크리트어 표준어인 ‘vaidūrya’의 음역)라는 세 글자에서 왔다고 보고 있다. 그는 고대 중국어에서 3음절 이상의 어휘는 대부분이 외래어였으므로 이 어휘역시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어라 설명하고 있다. 필자 역시 한국어의 ‘琉璃’는 중국의 ‘玻離’에서 온 것으로 보며, 본래 ‘璧流離’에서 ‘璧’자만 탈락되어 ‘流離’로 사용되다가 지금의 玻離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璧流離’ ‘流離’ ‘吠琉璃’ ‘璧瑠’ ‘樓黎’등으로 음역되기도 했는데, 현재는 玻離 bō lí 로 사용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琉璃)’와 차이가 보이지만, 유리의 명칭은 중국에서 玻離로 명명하기 이전에 유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아편(鴉片: 阿片) : 아편은 유럽의 공식 명칭인 opium [ˈɒpiəm]의 음역이다. 기원전 5세기를 전후하여 그리스인들이 양귀비꽃과 과일을 짠 즙이 수면, 진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리스어(혹은 라틴어)의 ‘opos(식물즙)’ 및 ‘opion(양귀비 즙액)’이라 이름 지었다. 이것이 다시 아랍인들에 의해 아랍어 ‘afyun’이란 이름으로 페르시아(이란)로 들어왔는데 중국인들이 이것을 처음에는 ‘阿芙蓉’이라 한자로 음역한 것이 후에 ‘阿扁(ā biǎn)’으로 바뀌었으며, 扁을 片으로 바뀌어 ‘阿片’이라 부르게 되었다. 후에 ‘阿’가 ‘鴨’로 발음되기도 하여 鴨片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마약의 개념으로 쓰일 때는

대개 ‘鴉片(yāpiàn)’이라고 불린다. 阿片은 이외에도 大烟, 鴉片, 鴨片, 黑貨, 黑米, 黑飯, 黑土, 藥土 등으로 불려지기도 하였는데 현재는 ‘阿片’이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한자어가 그대로 한국어로 들어와 독음으로 읽혀 ‘아편’이 되었다. 鴉片은 16세기부터 중국에 존재했던 음역<sup>32)</sup>어이지만 마약의 일종으로 인식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분명 아편 전쟁을 전후한 시기이며, 또 서재극(1970)에서 한국의 개화기 문헌에서 새롭게 등장한 외래어로 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아편이 한국에 유입되어 사용된 것은 분명 개화기 때 일인 것으로 추측된다.

<Gale<sup>33)</sup>의 『韓英字典』 (1911再版)>

『韓英字典』은 1945년 이전 출판된 것들 중 어휘 수집 정리가 가장 잘 정돈된 한국어 사전이다. 그리고 한국 고유어와 漢字語를 가능한 한 많이 수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對比에서 뜻과 訓에까지 언급하고 이를 다시 영어로 해설을 하고 있어 한 번에 韓·漢·英 對照辭典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 서재극의 자료에 따르면 이 사전에는 수많은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 외래어 중 한자를 음역한 단어를 중심으로, 현재 국어의 표기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표3]을 정리하였다. 본 자료는 개화기에 우리말 속에 새롭게 유입된 음역어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표3】 Gale의 『韓英字典』에 등장하는 음역어

32) 페데리코 마시니 (1993) 『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이정재 譯. 소명출판사 2005.

33) 게일(Gale, James Scarth: 奇一); 1863년생. 캐나다 토론토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과건 선교사로 임명. 서울, 해주, 평양 등지에서 韓國語와 漢文, 韓國古典과 歷史를 배웠다. 高宗 28년(1891)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대한기독교서회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아펜젤러(Appenzeller)·언더우드(Underwood)등과 함께 성서의 한국어 번역과 저술을 하는 한편, 光武 7년(1903)에는 皇城基督青年會를 창립하고, 光武 8년(1904) 李源兢·俞星濬 등을 도와 국민교육협회를 창립하게 했고, 王立亞細亞學會 韓國部會 幹事로 활동하는 등 1927년 한국을 떠날 때까지 한국학 연구의 선구자로서도 크게 공헌을 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尹致昊의 후원을 받아 성서를 번역한 것이다.

표제어	한자표기	영어표기	표준 국어 표기
가성소다	茄性素多	Caustic Soda	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
가피	加皮	Coffee	커피
격로모	格魯母	Chromo or chromium	크롬
구라과	歐羅巴	Europe	유럽
금계랍	金鷄蠟	Sulphate of quinine	금계랍
다력만	多力曼	Dynamite	다이너마이트
라사	羅紗	Woolen cloth	나사(羅紗)
미리건	美利堅	An American -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아메리카, 미국(美國)
미살	彌撒	Mass. (Rom.Cath)	미사(천주교)
아라비아숫자	亞刺比亞數字	Arabic notation	아라비아숫자
아편	鴉片	Opium	아편
안질모니	安質母尼	Antimony	안티모니
야화화	耶華和	The name used in chinese for Jehovah	하나님, 하느님
예수교	耶蘇教	Protestant Christianity	예수교, 기독교, 크리스티교
와스	瓦斯	Gas	가스
호렐즈	虎列刺	Cholera	콜레라

▷ 미리건 : 영어 ‘American’을 음역한 중국어의 ‘(阿)美利堅’을 영어의 발음이나 중국어 발음과는 상관없이 한자를 한글로 읽은 표현이다. 중국어로 ‘美利堅’은 ‘měi lì jiān’(메리지엔)’으로 발음되니 영어의 발음 ‘(아)메리칸’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를 한글로 읽은 ‘미리건’은 영어의 본음과 비슷하지도 않으며 중국어 발음과도 차이가 크다. 지금 현재 ‘美國’이라는 명칭은 중국 사람들이 ‘美利堅’에서 앞 글자 ‘美’를 따고 뒤에 국가를 표시하는 ‘國’를 붙여 간단히 ‘美國’이라 부르던 어휘를 그대로 들여와 사용한 것으로 이것 역시 음역어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와스(와사) : 영어의 가스(gas)를 중국어로 음역한 것이 바로 ‘瓦斯(wà

si)’이다. 이 어휘는 일본에서 들어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일본어는 ‘가스(가스)’로 그 표기가 바뀌었다. 페데리코 마시니(1993)<sup>34)</sup>도 네덜란드어 ‘gas’를 일본이 최초로 음역한 ‘瓦斯’를 중국이 받아들여 사용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중국인들도 처음에는 독자적으로 ‘加斯(jiā sī)’라 음역하였지만 ‘瓦斯’를 대체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가스’로 순화되었다.

▷ 호열즈(호열자) : 현재에도 종종 사용되는 ‘호열자’는 일본이 영어의 ‘cholera’(콜레라)를 한자로 음역한 ‘虎列刺’를 한글로 읽은 것이다. 이 어휘는 중국을 통하여 들어온 어휘는 아니지만 현재 중국에도 상용하고 있는 어휘이며 우리 음역어에 대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콜레라(cholera)는 고종 16년인 1879년경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처음 전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에서는 1822년경 동남아에서 유행하던 콜레라가 일본에 처음 상륙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일본인들은 ‘크로리(코로리)’라 부르다가 네덜란드에서 온 상인으로부터 ‘콜레라’란 병명을 듣고 ‘호열랄(虎列刺)’로 적고 ‘코레라’로 읽기 시작하였다. 또 ‘호열납(虎列拉)’이란 용어도 사용하였는데,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심한 설사 구토병을 ‘곽란(藪亂)’이라 부르다가 19세기 일본으로부터 ‘虎列刺(호열랄)’과 ‘虎列拉(호열납)’이 전해지자 두 용어를 혼용하였다.<sup>35)</sup> 둘 다 ‘hǔ liè lā(후리에라)’로 발음되니 ‘콜레라’의 음역어로 손색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슷한 두 글자 ‘刺(랄)’과 ‘刺(자)’를 혼동하여 ‘虎列刺’를 ‘虎列刺’로 잘못 표기하였지만, 이 誤讀을 지적하는 이가 전혀 없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虎列刺(호열자)’로 정착되었다. ‘콜레라’와 ‘호열자’는 전혀 다른 소리이다. 이 당시에 ‘음역’이란 관념이 고려되었더라면 이렇게 웃지 못할 실수는 없었을 것이다. 현재는 ‘콜레라’로 순화되었다.

이 외에도 여러 국가와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문물과 함께 중국으로 들어온 용어들이 음역되어 사용되다가 한국에 들어와 독음으로 읽혀 한국말로 묻혀져 버린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음 아래 열거한 ‘구락부’, ‘낭만’, ‘담배’는 일본을 거쳐 들어온 어휘로, 페데리코 마시니(1993)의 자료에서도

34) 페데리코 마시니, 『근대 중국어의 언어와 역사』 이정재 譯, 소명출판사, 2005년.

35) 조선일보 2009.10.16. 보도 참조.

일본에서 최초 차용한 어휘임을 밝히고 있다. 일본이 외래어를 음차한 것은 분명 근세 이후부터 시작한 일이고, 우리 말속에 서구계 외래어가 대량으로 유입된 시기역시 개화기 때였으므로 다음 어휘들은 분명 19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구락부(俱樂部) : 이 단어는 처음 일본에서 만들어져 중국으로 유입되어 사용된 단어이다. 영어의 club을 일본어로 음차하면서 동시에 그 뜻을 고려한 반음 반의법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음역어이다. 중국어로 발음해도 club과 매우 비슷한 jùlèbù(俱樂部)로 음역되었기에 거부감 없이 중국사회에서 쓰였으며, 그 한자만 보아도 의미를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한국어로 ‘구락부’라 읽으면 영어의 club과는 그 발음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현재에도 ‘클럽’이란 말 대신 종종 쓰인다.

▷ 낭만(浪漫) : 영어의 ‘Romanticism’의 ‘Roman’을 음역한 것이 ‘魯漫’인데, 일본은 ‘魯漫’을 그대로 사용하여 그 본래의 발음과 차이가 적었으나 중국과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Romantic’을 luómàn(羅曼蒂克)라 음역하였고, 후에 ‘浪漫’으로 변형되어 많이 쓰이게 되었다. 중국의 발음 ‘浪漫(làng màn)’ 역시 원어의 ‘Roman’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우리나라에서 독음(讀音)으로 읽자 ‘낭만’이 되어 본래 어원의 발음과 차이가 난다.<sup>36)</sup>

▷ 담배(談巴菰) : 담배는 포르투갈어로 tabacco라고 하고 페르시아어로 ‘tambaco’라고 한다. 이 ‘談巴菰’라는 명칭은 일본에서 전해진 것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페데리코 마시니(1840)<sup>37)</sup>의 자료를 살펴보면 ‘談巴菰’의 근세 모습으로 ‘트바菰’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黃遵憲의 『初使泰西

36) 서재극, 『開化期 外來語와 新用語』, 『東西文化』, 啓明大學校東西文化研究所, 1970년

37) 페데리코 마시니, 『근대 중국어의 언어와 역사』 이정재 譯, 소명출판사, 1993년, 259면(19세기 자료중의 신어목록) 참조.

記』(1872)에서 ‘淡巴菰 dàn bā gū’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그는 이것이 중국에서 간행된 책 중에서 가장 처음 사용된 것이므로 일본어 최초 차용어라 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나라의 ‘담배’라는 단어는 일본의 ‘たばこ(타바코)’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것 보다는 중국의 ‘談巴菰(담파고)’가 유입된 후 ‘담바고’로 변형되고, 지금의 ‘담배’로 줄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본다. 비록 페데리코 마시니는 ‘모巴菰’가 일본어를 차용한 것이라 보고 있지만,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중국에 담배가 처음 선 보인 것은 明朝 萬曆연간에 이탈리아 사람 利瑪竇(Mathaus Ricci S.J.(c)ltalus)가 중국에 선교사로 오면서 코담배를 공물로 바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담배가 일본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중국에 담배가 소개되었으며, 우리나라도 ‘타바코’라는 말보다는 ‘담바고’라는 말을 썼던 것으로 미루어 일본이 아닌 중국을 통해 먼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코로 피우는 담배가 유행하다가 청대에 와서 입담배가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때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이름이 ‘たばこ(tambaco)’였으며, 이것이 ‘淡巴菰’로 표기되다가 ‘談巴菰’로 바뀌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담바고’라 읽혀져 그 후에 ‘담배’라 바뀐 것으로 보아진다.

▷ 섭씨, 화씨 (攝氏, 華氏) : 우리가 흔히 쓰는 온도의 단위는 섭씨(°C) 온도계라 하는데 섭씨온도<sup>38)</sup>(攝氏溫度, Celsius temperature scale)는 1742년 스웨덴의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 셀시우스(A. Celsius)가 고안한 것이다. 섭씨라는 이름은 셀시우스라는 이름을 한자를 빌려 ‘攝西戌斯’로 가차한 데서 나온 것인데 이름을 짧게 성씨만 부르는 것이 익숙한 중국인들이 외국인의 이름도 첫 번째 단어만 떼서 뒤에 氏자만 붙여 표현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김씨, 이씨, 하듯이 ‘섭씨’가 되었는데 이는 셀시우스의 이름을 ‘셀씨’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것이다. ‘화씨’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화씨온도<sup>39)</sup>(華氏溫度, Fahrenheit's temperature scale)는 1720년에 파렌하이트

38) 물이 어는 온도를 0°C, 물이 끓는 온도를 100°C로 100등분한 온도 측정 단위.

39) 물이 어는 온도를 32°F, 물이 끓는 온도를 212°F와 같이 180등분한 온도 측정 단위.

(G. D. Fahrenheit)가 쓰기 시작한 것으로 화씨라는 말도 파렌하이트를 한자 華倫海로 음역한 것을 빌려 쓴 것이다. 본고의 앞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과학이라는 관념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은 분명 개항 이후이며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어휘들은 중국과 일본을 통하여 유입된 것이므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섭씨·화씨’역시 과학의 개념이 생긴 1800년대 이후에 개화기를 전후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한자 음역어로 보이나 그 유입된 시대를 알 수 없는 어휘들도 있다. 중세시기 문헌에서는 서유럽국가들의 이름이 보이지만, 미국(美利堅)이란 국가명을 기록하고 있는 문헌은 개화기 자료들이었다. 또한 ‘나성(羅城)’은 미국의 한 州 이름이니 중국과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美利堅’이 알려진 것보다 이전 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성’은 개화기때 유입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나성(羅城): 나성(羅城)은 중국어로 Luó chéng(羅城)이다. Los Angeles의 명칭은 처음 罗城으로 표기하다가 현대 중국어 표현은 Luò shān jī(洛衫矶) 또는 Láo sī ān qír sī(勞斯安琪儿斯)등으로 음역되었다. 洛는 羅와 그 발음이 ‘luò’로 똑같다. 중국인들의 습관대로 앞의 첫 음절 luò에 주(州)를 나타내는 ‘城’자를 붙여 ‘Luò chéng’이라 부르니 그 표기가 洛城 혹은 羅城 두 가지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羅城의 표기를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살펴본 음역된 한자 어휘들은 현재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필자는 과거 무분별한 한자 음역어 사용이 현대 국어 생활에 까지 영향이 적지 않다고 확신한다. 서재극(1970)도 “구라과, 와스, 호열즈”등의 음역어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최대한 원어 발음에 가깝도록 “유로과, 까스, 콜레라”로 해도 될 것을 구태여 한자음을 따라 “歐羅巴, 瓦斯, 虎列刺”등으로 표기하여 언중에게 혼동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분명히 지적하면서, 중국어와 일본어의 발음과 한국어의 발음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한자음을 쫓은 데 그 원인이 있다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갑오경장 전후로 크게 발달한 신소설에는 당시의 음역된 한자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인직의 『혈의 누』와 『은세계』,

『모란봉』,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등이 있으며, 이 주옥같은 문학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한국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비록 한글로 표현되어 있지만 한자 어휘를 한글 독음으로 표기한 부분이 많아서 글자 그대로만 보아서는 해석이 되지 않는 곳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신소설의 어휘들을 설명해주는 해석집이 따로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도 새롭게 출현하였다. 문학 작품을 볼 때는 작품 자체가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의 어휘를 훼손하지 않고, 따로 설명서를 보면서 학습하면 되지만, 그 때 사용되었던 어휘들이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서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목과할 수 없다.

### 2.3.2 개화기 한국 문헌과 외국 문헌에 나타난 음역어

우리나라에서 외래어 표기를 寫音化하여 한글로 표기하고 있는 것처럼 개화 당시도 국어 정책의 하나로 1894년(고종31년 7월9일)에 외국 국명과 지명·인명을 국문으로 적기로 한 법령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당시 문헌에 나타난 외국의 국명·지명·인명은 西歐語를 직접 차용하지 않고 일본이나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 간접 차용하여 우리 음으로 발음하였기 때문에 전혀 원음과 다르게 표기 되어 왔다. 앞서 살펴 본 음역어들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어휘들은 우리나라의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번역되어 표기한 것을 音寫하여 사용하거나 일본에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엄격히 따진다면 외래어로 시간적 경과와 공간적 전파를 통해서 유입·수용·동화의 과정을 밟아 완전히 국어에 정착되고 일반화 된 것이다. 이러한 외래어들은 과학화 또는 서구화된 문명을 먼저 수용한 나라에서 사용한 표기법을 받아 들이다보니 본래의 발음과 동떨어지는 현상을 사저오게 되었다. 만약 서구의 列強들이 중국과 일본을 체쳐놓고 우리와 먼저 교섭을 하였다면, 아마도 우리 발음으로 표기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못하여 우리는 중국어나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수용하였고 그 결과 본래 발음과 많은 차이가 생겨났다. 이러한 한자식 외래어 표기는 개화기 문헌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국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차츰 신문·잡지·소설 등에 한글 표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또 한글로 표기한 외래어가 증가 되었다.

개화기에 유입 차용된 외래어를 정리한 박영섭(1997)<sup>40)</sup>의 자료에서는 국내 문헌과 외국문헌에 나타난 외래어들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외국의 국명·지명·인명은 모두 외국 문헌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한자 음역어들이었다. 이에 필자는 박영섭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개화기 때 사용되었던 한자 음역어들을 국명·지명·인명으로 구분하고, 현대 한어의 표기까지 첨가하여 표로 정리해 보았다. 또한 그가 제시한 음역어 외에 現代漢語 음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국명·지명·인명도 각각 의 표 아래에 별도로 정리하였다. 박영섭(1997)이 조사한 한국 문헌은 『서유견문』, 『개화기 국어 교과서』, 『만국사물기원역사』와 기존 국어 학계에서 대상으로 삼았던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 문헌으로는 『夏門音新字典』과 『支那語 讀本』에 나오는 단어를 수집하여 비교한 것이다. 박영섭(1997)은 국명 25개, 지명 15개, 인명 25개를 조사하였는데, 필자는 이 가운데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는 국명을 【표4-1】에 다시 정리하였으며, 그 외에 漢語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국명 6개를 【표4-2】에 추가 하였다. 지명의 경우는 개화기 전후에 한국사회에서 사용되었던 지명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지명으로 9개를 필자 단독으로 선정하여 【표5】에 정리하였다.

【표4-1】

공식원어명칭	영어 표기	한국문헌	외국 문헌	現代漢語 표기	현대표준 한국어 표기
--------	-------	------	-------	---------	-------------

40)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박영섭, 『개화기 국어 어휘자료집⑤』 박이정(서광학술 자료사), 1997년.

41) 소련(蘇聯): 예전에는 러시아를 소련(蘇聯)이라 불렀었는데 소련의 정식 명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USSR)인데 이를 첫 번째 발음인 'So'를 'sū(蘇)'로 음역하여 뒤에 연방공화국의 줄임말 lián(聯)만 따서 소련(蘇聯)이라 부르게 되었다. 우리가 '소련' '아라사'라 부르는 것은 모두 중국어 음역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America	花旗國 合衆國 阿米利加 美國 阿美利加 亞美利加 美國	合衆國 亞美利加 加 美國 美洲 亞米利加 加	美国 Měiguó	미국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England	英吉利 英國	英吉利 英國	英国 Yīngguó	영국
République française	France	佛蘭西 法蘭西 / 法國	佛蘭西 法蘭西 法國	法国 Fǎguó	프랑스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Russia	俄羅斯 路西亞	路西亞 俄國	俄罗斯 Éluósī	러시아 <sup>41)</sup>
Reino de España	Spain	西班牙	西班牙	西班牙 Xībānyá	스페인
Repubblica Italiana	Italy	伊太利 意太利 伊國 義大利 以太利	伊大利 意太利 意大利	意大利 Yìdàlì	이탈리아
Rzeczpospolita Polska	Poland	波蘭	波蘭	波兰 Bōlán	폴란드
Portuguese Republic	Portugal	葡萄牙	葡萄牙	葡萄牙 Pútáoyá	포르투갈
Ελληνική Δημοκρατία	Greece	希臘	希臘	希腊 Xīlǎ	그리스

Koninkrijk der Nederlanden	Nether-lands (Holland)	荷蘭 和蘭	荷蘭 和蘭	荷兰 Hélan	네덜란드
جمهورية مصر العربية	Egypt	埃及	埃及	埃及 Àiji	이집트

【표4-2】

공식 원어 명칭	영어표기	現代漢語 표기	한글 취음	현대 표준 한국어표기
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Thailand	泰國 Tàiguó	태국	태국
Konungariket Sverige	Sweden	瑞典 Ruidiǎn	서전 <sup>42)</sup>	스웨덴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Iran	(波斯國)伊朗 Yīlǎng	파사국 <sup>43)</sup>	이란
भारत गणराज्य	India	印度 Yindù	인도	인도
Republik Indonesia	Indonesia	印度尼西亞 Yīndùnìxīyà 印尼 Yīnní	인니	인도네시아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Viet Nam	越南 Yuènnán	월남	베트남

【표5】

영어 표기	한국음역표기	現代漢語 표기	한글 취음	현대 표준 한국어 표기
Los Angeles	羅城	洛杉磯 Luòshānjī	나성	로스앤젤레스
Hague	海牙	海牙 Hǎiyá	해아	헤이그

42) 서전(瑞典):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스웨덴이란 명칭으로 순화되었지만, 잘 알려진 '서전 안경원'의 '서전'이나, 경주 서봉총(瑞鳳塚)의 瑞는 바로 이 瑞典에서 따온 말이다.

43) 波斯國(파사국); Persia(페르시아). 이란의 옛 이름.

44) 西貢;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 사이공(베트남어: Sài Gòn, 중국어: 西貢)이란 이

Saigon	西貢	西貢 Xīgòng	서공	사이공 <sup>44)</sup>
Berlin	柏林	柏林 Bólin	백림	베를린
Siberia	西伯利亞	西伯利亞 Xībóliya	서백리아	시베리아
Asia	亞細亞	亞細亞 Yàxiyā	아세아	아시아
Europe	歐羅巴	歐洲 ōuzhōu	구라파	유럽
Indochina	印度支那	印度支那 Yīndùzhīnà	인도지나	인도차이나

### 3. 결론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중국의 음역어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꾸준히 우리말 속에 적잖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말 속에 언제 어떤 이유로 한자 음역어를 그대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는 필자의 역량 부족과 우리말의 한자 어휘 대부분이 중국어를 그대로 따랐던 관습으로 인한 ‘한자 어휘 수용과정의 분석 연구’의 부재로 인한 자료 수집 실패에 그 원인을 두고자 한다.

우리말은 우리 토박이말에 그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자어를 설명하는 데에 적잖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한자어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이해하기 쉬운 토박이말로 바꾸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어학계에서 한자 남용에 대한 지적이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어 순화에 대한 목소리보다 약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국어학자들은 국어 순화를 운운하면서도 매번 한자 어휘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러웠다. 그러나 한자는 엄연한 중국의 문자이

름으로 프랑스 식민지인 코친차이나와 그 후의 독립국인 남베트남(1954년 - 1976년)의 수도이기도 했다. 1975년에 사이공은 호찌민 시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이공’이 많이 쓰인다.)

다. 더구나 중국인들이 음역한 한자어까지 아무런 여과 없이 한국어 속에 통째로 수용되어 있는 모습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다. 실제로 한자 음역어 가운데에는 고유어로 인식되어 있거나 심지어 한글과 한문의 표기만으로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 부가설명을 더해야 이해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그 문제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한자문화권에서 역사를 이어온 국가들 대부분이 모국어 속에 한자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관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중국의 문화와 문자에 영향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어에서도 예전에 들어온 한자어는 외래어로 다루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의 국어사전도 같은 관행을 따르고 있다.<sup>45)</sup> 이는 이미 우리 국어 속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한자어를 이제 와서 무작정 다른 토박이말로 모두 교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만한 국어생활의 토대를 뒤흔드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한자말이 우리 한글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국어사용에 도움이 되는 경우까지 순화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한자 어휘가 오히려 본래의 의미과악에 혼동을 주거나 원만한 국어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마땅히 순화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자어에 대한 지나친 관용은 절대로 우리 국어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음역된 한자어 문제는 더 이상 관용이 용납되는 경우와 순화해야 하는 경우를 확실히 구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 동안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어휘들에 대한 연구는 항상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용례를 나열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본 논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국어 속에 숨어있는 한자 음역어의 전반적인 모습을 통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난 한자음역어 연구의 한계점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한자 음역어들의 지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고에서 조사한 한자 음역어들은 복잡한 한자 어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한자 음역어의 발생과정과 우리 국어 속에 정착하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 앞으로 우리 역사와 문헌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45) 김용권, 「외래어 오용과 남용」, 『새국어생활』 1996년 제6권 제3호, 126면 참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study of Using Chinese Character Transliteration in Korea Society

Park, Youngae · Mo, Jeongyeol

The Chinese Character(漢字) had been introduced 漢字 into Korea since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During the long period, Chinese Character has been naturally converged and assimilated into Korean language with passing time, so now Chinese character roughly consists more than 2/3 in the lexicon of Korean. Especially, since 19th century, the new word has been introduced with introducing of foreign culture indiscreetly causing rapidly changing of structure of Korea society during the historical disordered time of Korea. The Chinese characters transliteration, introduced during thatperiod, has been affecting a lot on our Korean language.

It is only natural that Korean vocabulary is mostly consist of Chinese chracterter when we consider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is maintained in long period and the geographical situation. However, it is very disgraceful that those Chinese characters transliteration still remains in Korean language. Moreover, even 'Hunminjeongeum(Korean script) 'was created which is the our own character system of Korea, Koreans have been thoughtlessly taking the word which is based on chinese character without any filtering. This is the fundamental reason the author takes issue with Chinese characters transliteration seriously.

Key words : Chinese charcters, Chinese lexicon, transliteration, Chinese, native tongue, Korean, loanword

## 참고문헌

### □ 논문 및 평론

- 강신항, 「널리 쓰이는 외래어와 외국어」, 『새국어생활』 2003년 제13권 제4호.  
「외래어가 한국어에 끼친 공과(功過)」, 『새국어생활』 2004년 제14권, 제2호, 23-57면.
- 김순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잉여적 표현 고찰」, 『국제언어문학』, 2015년 제31호, 27-46면.
- 김용권, 「외래어 오용과 남용」, 『새국어생활』 1996년 제6권 제3호, 126면.
- 김효숙, 「중국어의 외래어 수용 기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년, 31-43면.
- 남풍현, 「漢字語와 漢字混用」, 새국어생활 1999년 6월호, 국어국립원, 169-180면.
- 맹주억, 「中國의 韓中 二重言語狀況과 中國語의 影響」, 『中國語言語研究』 1991년 제1집 5-52면.
- 박지영, 「우리 국어 중의 漢字語와 中國語의 語彙 對照 研究」, 『中國語文學誌』 2005년 第18輯, 469면.
- 박영섭, 「韓國 漢字語의 起源的 系譜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년.
- 박영섭, 「國語 漢字語에 대한 小攷」, 『國語學』 1997년 29집, 342면.
- 서재극, 「開化期 外來語와 新用語」 東西文化 啓明大學校東西文化研究所, 1970년.
- 손경옥, 「현대중국어의 외래어 연구」, 『中國語文論叢』 1997년 第12輯, 82면, 77-94면.
- 심재기, 「국어 어휘의 출생과 성장」, 『어문학논총』 2006년 제25집, 국민대어문학연구소.
- 안준표, 「신시기 한어의 신어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년, 69면.
- 양세열, 「중국어의 외래어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년, 22면.
- 이기문, 「근세 중국어 차용에 대하여」, 『아시아연구』 1965년 제8권 2호, 195면.
- 임홍빈,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 『새국어생활』 2008년 제18권 제4호, 5-32면.
- 정기화, 『한자의 한국음과 중국음과의 비교연구』, 외국어대중국문제연구소, 1976년, 27면.
- 정희원,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 『새국어생활』 2004년 제14권 제2호, 22-52면.
- 조남호,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새국어소식』 2005년 통권88호, 국립국어원.
- 허 벽, 「한·중 양국어의 어휘 비교연구」, 『말』 1994년 19호, 연세대학교출판사.  
「韓·中·日 三個國語의 漢字語彙比較研究」, 東方學志, 2001년. 41-42, 47면.

허웅, 「국어순화는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려대 民族文化研究, 1977년, 126, 130면.

허철, 「국어사전 등재 어휘를 통해 본 어휘 구성(構成) 분석(分析)과 한자(漢字)의 조어(造語) 능력 조사」, 『동방한문학』 2008년 37권, 동방한문학회.

□ 단행본

김무림,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2004년, 218-286면.

羅常培, 『언어와 문화』 하영산 譯,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년, 48-58면.

박덕유, 『문법교육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역락, 2005년, 33면.

박영섭, 『개화기 국어 어휘자료집』, 박이정 (서광학술 자료사), 1997년.

엄익상, 『한국한자음 중국식으로 보기』, 한국문화사, 2008년.

王力, 『汉语史稿』 下册, 科学出版社, 1958년, 225면.

이능화, 『朝鮮基督教及外交史』, 朝鮮基督教彰文社, 1928년.

이익섭, 이상억, 채완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1997년, 64-79면.

최창렬, 『우리말 어원연구』, 일지사, 1986년.

페데리코 마시니, 『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이정재 譯, 소명출판사, 2005년.

이 논문은 2016년 06월 30일 접수되어 07월 29일까지 심사받아 08월 5일 게재 확정됨.